

2005 동아시아 경제포럼 대통령 축전

‘동아시아 경제포럼’을 축하합니다. 각국에서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동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입니다.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조화시키며 통합과 협력의 질서로 나아가야 합니다.

한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,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번영의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.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, 동북아 물류와 금융, R&D 허브로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.

여러분의 진지한 논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번 포럼의 큰 성공을 기대하며,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.

2005년 10월 5일
대통령 노무현